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영향요인

이진아¹ · 권영란²¹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²조선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Social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according to Alcohol Consumption by Parents'

Lee, Jin-A¹ · Kweon, Young-Ran²¹Namgu Addiction Management Center, Gwangju²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competence of school-aged children according alcohol consumption by their par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58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2 2013,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PC + 21.0 program. **Results:**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alcohol use; Non-use parent group (52.7%), social use parent group (31.0%), and problem use parent group (16.3%). Participants whose parents were problem users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F=14.45, p<.001$), social support ($F=5.82, p=.003$), and social competence ($F=16.33, p<.001$) compared to students in the other two group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parents who were alcohol abusers, the variables that predicted social competence was friend support (66.0%). **Conclusion:**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the crucial role of peer support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of parents who abuse alcohol. Further, for these children,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may be most beneficial.

Key words: Parents, Drinking, Child, Competen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건강한 자아와 사회적 능력 및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단계로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1].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면 건강한 청소년기로 이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인생 전반에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2]. 실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잘 이뤄지지 못한 아동은 청소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거나 또는 비행,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나타난다[3].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주요어: 부모, 음주, 아동, 능력

*이 논문은 제1저자 이진아의 석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sun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eon, Young-Ran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5 Fax: +82-62-230-6329 E-mail: yrk@chosun.ac.kr

Received: February 25, 2014 Revised: March 28, 2014 Accepted: July 17,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능력 발달이 잘 이뤄지도록 돕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로 학령기에는 가족관계를 넘어 학교 내에서 또래관계로 대인관계가 확장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사교성, 인기도 및 대인관계 태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4].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하다[5].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더 높게 나타난다[6]. 또한,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정서조절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바로 가정이며,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높고, 긍정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은 높다[6]. 특히,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잘 하는 아동의 경우,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5]. 또한, 학령기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신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2,8]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9]. 즉,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아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과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지지자원인 부모가 심각한 음주문제를 지닌 경우 자녀에게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10]. 실제 음주문제를 지닌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지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11,12].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단순공포증,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기분부전장애의 높은 유병율을 보여주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이 많았다[13]. 이처럼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에서도 문제음주자의 자녀가 사교적 음주자의 자녀에 비해 심리사회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

peractivity disorder [ADHD]), 파도림,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협동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협동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학령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와 관련된 가족 연구는 주로 문제음주자의 배우자 또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5]. 반면에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아동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부모 음주문제,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 음주문제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 소재 5개구에서 각각 하나의 초등학교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이면서 초기청소년기에 해당되어 신체·심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및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교육과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효과크기 $f^2=0.02$, 유의 수준 $\alpha=.05$, 검정력 $(1-\beta)=.80$, 예측변수 3개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최소 표본수가 550명인 것을 근거로 하였다. 다섯 곳의 초등학교 학생 수, 회수율 및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하여 총 6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 10명을 제외하고 566명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 중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8부를 제외하여 최종 558명이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8문항으로 성별, 부모님과 거주, 가정형편, 가족분위기,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 친구 수, 음주 경험이 포함되었다. 또한,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 30문항, 정서인식과 표현 12문항, 사회적 지지 24문항, 사회적 능력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도구 사용승인은 번역자와 개발자에게 각각 이메일로 받았다.

1) 부모의 음주문제

부모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Jones [16]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도구 [1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자녀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으로 자녀가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 답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부모의 음주문제란 자녀를 둔 성인이 허용범위 이상의 음주 행태 또는 장기간의 음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총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Jones가 제시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관한 분류 기준에 따라 0-1점은 비음주 부모군, 2-5점은 사회적 음주 부모군, 6점 이상은 문제음주 부모군으로 나누었다[16]. 선행 연구[17]에서 Cronbach's alpha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정서인식 및 표현

학령기 아동이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고 구별하며,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능력인 정서인식 및 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도구[18]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도구 [19]를 사용하였다. EESC는 본래 16문항이었으나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면서 4문항이 제외되었다[19].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을 모두 역산 처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19]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0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89였다.

3) 사회적 지지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도구[20]를 원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 5점 척도이고,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20]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친구지지 .86, 가족지지 .84, 교사지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친구지지 .93, 가족지지 .92, 교사지지 .91, 전체 Cronbach's alpha값은 .94였다.

4) 사회적 능력

학령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또래관계에서 보여주는 사교성, 인기도 및 대인관계 특성인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he Scales of Social Competence [4]를 한국어판으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4]를 이용하였다.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한 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6-6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4]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사회성 .86, 인기도 .84, 제멋대로하기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사회성 .81, 인기도 .85, 제멋대로하기 .78, 전체 Cronbach's alpha값은 .85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에 C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13-026)을 받아 2013년 9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 시행되었다. 먼저,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절차는 각 학교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보건수업시간에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시행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기간, 연구의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비밀보장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을 시행하는 목적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대상자의 비밀보장,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작성과정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설문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문구류의 선물로 보상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다섯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잔차분석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총 558명으로 CAST-K 부모음주문제 분류기준에 따라 비음주 부모군 294명(52.7%), 사회적 음주 부모군 173명(31.0%), 문제음주 부모군은 91명(16.3%)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대상자의 부모님과 동거유무($\chi^2=11.40, p=.003$), 가족의 경제수준($\chi^2=15.90, p=.003$), 가족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Parents' Use of Alcohol

(N=5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558)	Non-use parent group (n=294)	Social use parent group (n=173)	Alcohol abuse parent group (n=91)	χ^2 (p)
		n (%)	n (%)	n (%)	n (%)	
Gender	Male	298 (53.4)	156 (53.1)	91 (52.6)	51 (56.0)	0.31 (.855)
	Female	260 (46.6)	138 (46.9)	82 (47.4)	40 (44.0)	
Live with parents	Yes	518 (92.8)	276 (93.9)	165 (95.4)	77 (84.6)	11.40 (.003)
	No	40 (7.2)	18 (6.1)	8 (4.6)	14 (15.4)	
Economic status	Wealthy	262 (47.0)	159 (54.1)	73 (42.2)	30 (33.0)	15.90 (.003)
	Middle class	287 (51.4)	132 (44.9)	97 (56.1)	58 (63.7)	
	Poor	9 (1.6)	3 (1.0)	3 (1.7)	3 (3.3)	
Family climate	Harmonious	369 (66.1)	216 (73.5)	102 (59.0)	51 (56.0)	24.76 ($<.001$)
	Ordinary	174 (31.2)	72 (24.5)	69 (39.9)	33 (36.3)	
	Unharmonious	15 (2.7)	6 (2.0)	2 (1.1)	7 (7.7)	
Academic achievement	High grades	129 (23.1)	76 (25.9)	36 (20.8)	17 (18.7)	17.52 (.002)
	Middle grades	375 (67.2)	198 (67.3)	122 (70.5)	55 (60.4)	
	Low grades	54 (9.7)	20 (6.8)	15 (8.7)	19 (20.9)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361 (64.7)	204 (69.4)	107 (61.8)	50 (54.9)	10.11 (.039)
	Ordinary	180 (32.3)	84 (28.6)	61 (35.3)	35 (38.5)	
	Poor	17 (3.0)	6 (2.0)	5 (2.9)	6 (6.6)	
Best friends	None	6 (1.1)	1 (0.3)	2 (1.2)	3 (3.3)	12.71 (.048)
	1-3	55 (9.9)	24 (8.2)	17 (9.8)	14 (15.4)	
	4-6	104 (18.6)	50 (17.0)	34 (19.7)	20 (22.0)	
	≥ 7	393 (70.4)	219 (74.5)	120 (69.3)	54 (59.3)	
Experience with alcohol	Yes	295 (52.9)	142 (48.3)	98 (56.6)	55 (60.4)	5.55 (.062)
	No	263 (47.1)	152 (51.7)	75 (43.4)	36 (39.6)	

분위기($\chi^2=24.76, p<.001$), 학교성적($\chi^2=17.52, p=.002$), 학교생활 만족($\chi^2=10.11, p=.039$), 친구 수($\chi^2=12.71, p=.048$)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군인 경우 편부모가정인 대상자는 15.4%였으며,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3%,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7%를 차지했다.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제음주 부모군의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6%, 사회적 음주 부모군의 경우는 2.9%였다.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경우 20.9%로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8.7%, 비음주 부모군 자녀 6.8%로 조사되었다.

2.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점수는 비음주 부모군 자녀가 47.54 ± 8.13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45.47 ± 8.96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 42.12 ± 9.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45, p<.001$). 사회적 지지점수는 비음주 부모군 자녀가 95.37 ± 15.37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92.02 ± 15.72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 89.56 ± 15.7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82, p=.003$),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지지는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57, p=.566$). 사회적 능력은 비음주 부모군 자녀 49.59 ± 6.81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48.03 ± 7.02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 44.87 ± 7.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33, p<.001$). 즉, 부모 음주문제정도가 심각할수록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 점수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3.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에게 있어서 사회적 능력 점수는 가족 분위기($F=2.37, p=.099$), 학교성적($F=0.65, p=.525$)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문제음주 부모군은 성별에서 남자는 42.96 ± 7.23점, 여자는 47.30 ± 6.37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능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29, p=.004$).

Table 3. Comparison of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of Parents Abusing Alcohol by General Characteristics (N=91)

Variables	Categories	Social competence	
		M ± SD	t or F (p)
Gender	Male	42.96 ± 7.23	-2.99 (.004)
	Female	47.30 ± 6.37	
Live with parents	Yes	45.05 ± 6.84	0.57 (.569)
	No	43.86 ± 8.99	
Economic status	Wealthy	45.50 ± 6.91	3.83 (.026)
	Middle class	45.10 ± 6.99	
	Poor	34.00 ± 6.25	
Family climate	Harmonious	45.29 ± 7.58	2.37 (.099)
	Ordinary	45.39 ± 6.20	
	Unharmonious	39.29 ± 2.59	
Academic achievement	Top grades	46.65 ± 6.95	0.65 (.525)
	Middle grades	44.53 ± 7.14	
	Low grades	44.26 ± 7.55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47.04 ± 6.57	7.19 (.001)
	Ordinary	42.94 ± 6.95	
	Poor	38.00 ± 6.57	
Best friend	None	37.00 ± 4.58	13.61 (<.001)
	1-3	38.00 ± 6.54	
	4-6	42.50 ± 4.59	
	≥7	47.96 ± 6.36	
Experience with alcohol	Yes	46.00 ± 7.67	1.89 (.062)
	No	43.14 ± 6.01	

Table 2.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558)

Variables	Non-use parent group ^a (n=294)	Social use parent group ^b (n=173)	Alcohol abuse parent group ^c (n=91)	F	p	Scheffé
	M ± SD	M ± SD	M ± SD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47.54 ± 8.13	45.47 ± 8.96	42.12 ± 9.08	14.45	<.001	a>b>c
Emotional awareness	24.24 ± 4.17	23.22 ± 4.71	21.22 ± 4.58	16.65	<.001	a>c, b>c
Emotional expression	23.30 ± 4.44	22.25 ± 4.70	20.90 ± 4.91	10.06	<.001	a>c
Social support	95.37 ± 15.37	92.02 ± 15.72	89.56 ± 15.71	5.82	.003	a>c
Family support	35.05 ± 6.18	33.44 ± 6.25	32.58 ± 6.98	6.87	.001	a>b, a>c
Friend support	31.06 ± 6.16	29.74 ± 6.67	28.52 ± 7.13	6.11	.002	a>b, a>c
Teacher support	29.25 ± 6.71	28.84 ± 6.22	28.46 ± 6.55	0.57	.566	
Social competence	49.59 ± 6.81	48.03 ± 7.02	44.87 ± 7.17	16.33	<.001	a>c, b>c

4.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비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서 인식($r=.48, p<.001$), 정서표현($r=.45, p<.001$), 친구지지($r=.77, p<.001$), 가족지지($r=.48, p<.001$), 교사지지($r=.52,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서 인식($r=.33, p<.001$), 정서표현($r=.32, p<.001$), 친구지지($r=.76, p<.001$), 가족지지($r=.45, p<.001$), 교사지지($r=.54,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서 인식($r=.27, p=.010$), 정서표현($r=.28, p=.006$), 친구지지($r=.81, p<.001$), 가족지지

($r=.26, p=.015$), 교사지지($r=.41,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세 군 모두 정서인식, 정서표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에서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Table 4. Correlation among Emotion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by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558)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Emotional awareness r (p)	Emotional expression r (p)	Friend support r (p)	Family support r (p)	Teacher support r (p)
Non-use (n=294)	Emotional expression	.79 (<.001)				
	Friend support	.47 (<.001)	.42 (<.001)			
	Family support	.35 (<.001)	.34 (<.001)	.53 (<.001)		
	Teacher support	.37 (<.001)	.36 (<.001)	.49 (<.001)	.42 (<.001)	
	Social competence	.48 (<.001)	.45 (<.001)	.77 (<.001)	.48 (<.001)	.52 (<.001)
Social use (n=173)	Emotional expression	.81 (<.001)				
	Friend support	.30 (<.001)	.31 (<.001)			
	Family support	.41 (<.001)	.39 (<.001)	.44 (<.001)		
	Teacher support	.38 (<.001)	.35 (<.001)	.49 (<.001)	.61 (<.001)	
	Social competence	.33 (<.001)	.32 (<.001)	.76 (<.001)	.45 (<.001)	.54 (<.001)
Alcohol abuse (n=91)	Emotional expression	.83 (<.001)				
	Friend support	.25 (.017)	.24 (.025)			
	Family support	.29 (.005)	.34 (.001)	.31 (.002)		
	Teacher support	.11 (.306)	.14 (.193)	.50 (<.001)	.29 (.005)	
	Social competence	.27 (.010)	.28 (.006)	.81 (<.001)	.26 (.015)	.41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558)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Non-user (n=294)	(Constant)	18.87	1.58		11.86	<.001
	Friends support	0.61	0.05	.55	11.94	<.001
	Teacher support	0.17	0.04	.17	4.08	<.001
	Best friend (d)=3 (more than 7)	0.02	0.01	.14	3.65	<.001
	Academic achievement (d)=2 (high grade)	0.21	0.06	.12	3.34	.001
	Emotional awareness	0.19	0.07	.12	2.85	.005
R ² = .65, Adjusted R ² = .65, F = 105.89, p < .001						
Social user (n=173)	(Constant)	20.72	1.74		11.89	<.001
	Friends support	0.61	0.06	.58	10.08	<.001
	Teacher support	0.24	0.06	.21	3.91	<.001
	Best friend (d)=3 (more than 7)	0.03	0.01	.16	3.21	.002
	Academic achievement (d)=2 (top grade)	0.18	0.09	.10	2.05	.042
	R ² = .64, Adjusted R ² = .63, F = 75.42, p < .001					
Alcohol abuser (n=91)	(Constant)	21.55	1.82		11.84	<.001
	Friends support	0.82	0.06	.81	13.21	<.001
R ² = .66, Adjusted R ² = .66, F = 174.45, p < .001						

미치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비음주 부모군 2.13, 사회적 음주 부모군 1.92, 문제음주 부모군 2.12으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공차한계(tolerance)는 비음주 부모군 .58-.92, 사회적 음주 부모군 .65-.95, 문제음주 부모군 1.0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비음주 부모군 1.09-1.73, 사회적 음주 부모군 1.10-1.55, 문제음주 부모군 1.0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여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beta = .55, p < .001$), 교사지지($\beta = .17, p < .001$), 친한 친구 수($\beta = .14, p < .001$), 학업성적($\beta = .12, p = .001$), 정서인식($\beta = .12, p = .005$) 순이었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65.0%로 나타났다($F = 105.89, p < .001$).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beta = .58, p < .001$), 교사지지($\beta = .21, p < .001$), 친한 친구 수($\beta = .16, p = .002$), 학업성적($\beta = .10, p = .042$) 순이었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63.0%로 나타났다($F = 75.42, p < .001$).

한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친구지지($\beta = .81, p < .001$)였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66.0%로 나타났다($F = 174.45,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부모 음주문제 빈도를 살펴보면, 16.3%의 부모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6개 학급을 조사한 결과 14.3%의 부모가 음주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인 학령기 아동 중 부모의 음주문제로 고민하는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전체학생의 1/6정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편부모가정, 경제상태가 어렵고,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으며,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문제음주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더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결혼가정이 많다고 보고하였다[23]. 따라서, 학교 내 담임 및 보건교사는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파악하고, 가정 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능력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이 어려웠으며, 사회적 지지도 낮고, 사회적 능력도 저하되었다. 부모의 음주문제는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아동의 욕구나 정서적 경험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24]. 결국,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 억제하는 정서처리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표현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로부터 자녀는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 자녀들은 가족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 방식으로 또래와 소통하려할 때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게 되고, 결국은 건강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2]. 실제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정서 표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따돌림의 경험이 많다고 보고된다[14]. 이처럼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은 정서인식과 표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일반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즉,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다면 아동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와 친구가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차이를 보여준다[25]. 그런데 본 연구 결과처럼 문제음주자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이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와 친구가 학령기 아동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냐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문제음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고, 친구지지를 증진할 수 있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학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은 그렇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비해 낮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들,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아동들, 그리고 친구 수가 적은 아동들이 더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취약한 경우에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덜 발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의 취약성은 아동의 성장발달, 특히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부모의 문제음주 자체보다는 문제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취약한 환경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아동청소년 상담영역에서도 음주문제가 있는 가정의 가족환경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의사소통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구조적으로도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다. 학령기 아동에게 이런 가정환경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부모가 심각한 문제음주자인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또래 아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26]. 결국,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취약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자녀를 위해서는 예방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친구지지만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66.0%였다. 그러나 비음주 부모군과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적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비음주 부모군의 자녀는 정서인식도 사회적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회적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더 많은 보호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바로 사회적 지지 중에서 친구와 교사의 지지인데, 특히 친구의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27].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며 많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은 사회성과 더불어 학업 성적도 우수한 경우가 많다[28]. 이는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대상자가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많은 친구들과로부터 학교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긴장이 제거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므로 학습활동이 더욱 촉진된다. 실제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또래인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능력을 차이가 나타난다[29]. 따라서, 학교에서는 문제음주자 자녀의 경우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지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문제음주부모군의 학령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이 낮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친구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제음주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친구지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예방적 측면의 학교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음주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 이전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사회적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은 모두 차이가 있었다. 즉, 문제음주군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음주 부모군의 자녀는 사회적 능력에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적, 정서인식이 영향요인이었고, 사회적 음주 부모군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회적 능력의 영향요인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적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문제음주 부모군의 자녀에게는 오직 친구 지지만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일 지역의 초등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대상자의 주관적 보고로 이루어졌기에 객관적 보고와 함께 학령기 아동의 연령대별 사회적 능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음주군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음주군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친구지지를 강화하도록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Woo SK. 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s and self-control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7;14(4):427-450.
2. Luecken LJ, Roubinov DS, Tanaka R. Childhood family environment, social competence, and health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13;30(2):171-178. <http://dx.doi.org/10.1177/0265407512454272>
3. Choi 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behaviors, emotional ability, social ability and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13;17(1):17-35.
4. Kim JE. The influences of parent attachment and empath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5. Zhou Q, Eisenberg N, Losoya SH, Fabes RA, Reiser M, Guthrie IK, et al.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2002;73(3):893-915.
6. Kim JE, Doh HS, Kim MJ, Kim JH. The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n social competence of school-aged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3;34(3):129-150. <http://dx.doi.org/10.5723/KJCS.2013.34.3.129>
7. Panfile TM, Laible DJ.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012; 58(1):1-21. <http://dx.doi.org/10.1353/mpq.2012.0003>
8. Kim SJ, Jo OG.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school students. *Educational Theory*. 2003;13(1):361-385.
9. Min YH, Jang SH. A structural analysis on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and flow 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3;22(3):123-137.
10. Kim H, Park SK.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 concer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role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1;49(4):37-50.
11. Loukas A, Zucker RA, Fitzgerald HE, Krull JL.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among sons of alcoholics: Effects of parent psychopathology, family conflict, and child under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003;112(1):119-131.
12. Obot IS, Anthony JC. Mental health problems in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Epidemiologic research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2004;13(4):83-96.
13. Mathew RJ, Wilson WH, Blazer DG, George LK. Psychiatric disorder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ata from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projec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93;150(5):793-800.
14. Kim SH, Koo MS, Oh DY, Park IH, Lee KS, Kim JY, et al. Parental alcohol problems and childrens behavior &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1; 22(3):162-168. <http://dx.doi.org/10.5765/jkacap.2011.22.3.162>
15. Hyun M, Kang H, Kim H. Parents'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their university student offsp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1;20 (4):355-364.
16. Jones JW.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 Chicago, IL: Family Recovery Press; 1981.
17. Kim MR, Chang HI, Kim KB.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5;34 (4):1182-1193.
18. Penza-Clyve S, Zeman J. Initial validation of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002;31(4):540-547.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3104_12
19. Choi ES, Bang HJ.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1;24(3):105-128.
20. Han MH, Yoo AJ.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6;17(1):173-188.
21. Doh HS, Falbo T.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99;23(1):149-162. <http://dx.doi.org/10.1080/016502599384044>
22. Jeon W. The effects of modified solution-focused counseling on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alcoholic parents [master's thesis]. Yongin: Dankook University; 2003.
23. Lee CS, Kweon YR, Choi BS.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mental health by the level of parents' drinking probl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12(4):503-511.
24. Kim HI, Shin MS, Kim EJ.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dulthoo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12;28(4):353-380.
25. Hemmeter ML, Ostrosky M, Fox L.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A conceptual model for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006;35(4):583-601.
26. Hussong AM, Flora DB, Curran PJ, Chassin LA, Zucker RA. Defining risk heterogeneity for internalizing symptoms among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8;20(1):165-193. <http://dx.doi.org/10.1017/s0954579408000084>
27. Altermatt ER, Pomerantz EM.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related and motivational beliefs: An investigation of similarity and influence among frien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3;95(1):111-123. <http://dx.doi.org/10.1037/0022-0663.95.1.111>
28. Wentzel KR, Barry CM, Caldwell KA.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Influences on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4;96(2):195-203.
29. Chien WT, Lee IYM. An exploratory study of parents' perceived educational needs for parenting a child with learning disabilities. *Asian Nursing Research*. 2013;7(1):16-25.